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8권 4호(2015年11月)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5:28(4) 041-056
http://jkmc.jams.or.kr
http://dx.doi.org/10.14369/skmc.2015.28.4.041

『煙蘿子內境圖』와 『華佗先生內照圖』의 비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具仁謀 · 金學東 · 金基郁 · 李丙旭 *

Comparison of Yanluozi's and Huatuo's visceral figures

Koo In-Mo · Kim Hag-Dong · Kim Ki-Wook · Lee Byung-Wook *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research is aimed to compare the visceral figures published during the Song Dynasty, and to reveal the differences between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knowledge in the presence of Taoist theoretical background and in its absence. It is also aimed to discuss the theoretical differences among existing medicines.

Methods : First, we will find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drawings describing the internal organs of a human body in the two publications, and study what made suc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how they affected medical theories. Secondly, we will analyze and update the internal organ data specified in the two publications as it relates to the five viscera and six bowls. Finally, we will analyze the commonalities and the differences, and study the background and the significance of medical theories.

Results & Conclusions : 1. The positions of the liver and the spleen in the drawing of the *Yanluozi's and Huatuo's visceral figures* are inverted in the drawing of the *Huatuo's visceral figures*. The positions of other internal organs are similar.

2. The section of the five viscera in the *Yanluozi's and Huatuo's visceral figures* describes the Taoist gods necessary to build up discipline by the means of meditation.

3. In the *Zhutidian's visceral theory*, a belly button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organ for the activity of life.

4. In the *Huatuo's visceral figures*, the 'Zangzhen' generated from foods is described as the energy source for the vitality of the five viscera.

5. The *Huatuo's visceral figures* mentioned the functionality of a gall bladder and an Tripple Energizer, which was not mentioned in the *Yanluozi's and Huatuo's visceral figures*.

6. Both the『Yanluozi's and Huatuo's visceral figures』and the『Huatuo's visceral figures』specify that the moisture filtered through small intestines turns into urine.

Key Words : visceral figures, Yanluozi, Huatuo, Urine formation process, Zangzhen

Ⅰ. 序 論

도교의학에서는 '內景'을 다른 말로 '內境'、'內照'라 한다. 內景은 바로 血肉筋骨臟腑의 象이다. 그 핵심은 신체 내부에 거처하여 일체의 象이 나타나기에 內景이라 한다. 따라서 醫家의 '內景'의 주로 臟腑를 지칭하는 뜻이며, 실제 관찰된 주요한 象을 臟腑圖로 그리는 것을 의미하며, '外景'은 주로 體表의 表志와 經絡을 가리키는 것이다.[1)]

또한 사진의 기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繪畫는 인류의 역사와 배경 인물의 형상 등을 묘사하여, 시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였다. 그래서 圖像으로 작품을 표현하면 일종의 세계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지식의 교류와 전파에 좋은 매개가 되므로 그 중요성이 문자와 필적할 만하다. 게다가 그림에 문자를 첨가하여 표현하면, 글과 그림의 난해한 부분의 해석이 서로 보완되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 있어 臟腑에 관한 기록은 유구한 歷史가 있으며, 『黃帝內經靈樞·經水篇』에 "무릇 팔 척의 사람은 피육에서 이것을 살필 수 있으니, 밖으로는 헤아려 누르고 만져서 이를 얻을 수 있다. 그가 죽으면 解剖하여 이를 볼 수 있다. 오장의 딱딱함과 부드러 움、육부의 크고 작음、먹은 곡식의 다소、경맥의 장단、혈의 청탁、기의 다소 …… 모두 대강의 정도 (어림수)가 있다"[2)]고)고 하여 장부의 위치、크기、형 태 등을 언급하였으며, '解剖'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3)].

중국 역사에서 의학연구를 목적으로 시행한 해부는 新의 天鳳 3년에 王莽이 太醫令 與巧로 하여금 인체를 해부하여 오장을 재고 가는 대나무로 맥의 길이를 헤아리게 하였다는 기록[4)]과 宋代의 慶歷(AD 1041~AD 1048)중 반란을 일으킨 區希範과 그 일당을 진압하는 과정에 區希範에 대한 해부가 이루어졌다는 기록[5)]이 있으며, 송대 이후 인체 해부를 바탕으로 장부의 형상을 그린 臟腑圖들이 제작되어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의 연구[6)7)]를 바탕으로 하여 현존하는 最古의 장부도인 煙蘿子의 「內境圖」와 『華佗先生內照圖』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煙蘿子內境圖』는 1987년 서울 法仁文化社에서 출판한 『正統道藏』 第7冊을 저본으로 삼았고, 『華佗先生內照圖』는 傳世本 華陀遺稿인 『華佗先生玄門脈訣內照圖』는 1995년 북경 華化出版社에서 출판한 『華佗遺書』를 저본으로 삼았다. 현재 세상에 전해지는 『화타선생내조도』는 『연라자내경도』와 저작 시기가 멀지않은 元代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며, 두 문헌 모두 해부를 바탕으로 장부의 형상을 그린 臟腑圖를 포함하고 있다. 『화타선생내조도』는 일명 『화타선생현문맥결내조도』라고도 하며, '玄門'과 '內照'라는 도교의학의 용어가 사용된 점과 『화타선생내조도』의 여러 판본 중 嘉靖刻本이 『道藏精華』에 수록되었다[8)]는 점을

* Corresponding Author : Lee Byung-Wook.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ongdaero 123, Gyeongju, Gyeongsangbuk-Do, Korea.
Tel : +82-54-770-2665
E-mail : omis@dongguk.ac.kr
Received(7 October 2015), Revised(15 November 2015), Accepted(16 November 2015).

1)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北京. 靑島出版社. 2003. 「引言」 p.ⅴ.
2) 金達鎬 編譯. 注解補注註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407. "若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 可解剖而視之.其藏之堅脆, 腑之大小, 谷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淸濁, 氣之多少 …… 皆有大數"
3)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90.
4) 야마다 게이지 저, 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2002. p.105."翟義의 도당인 王孫慶을 체포했을 때 王莽은 궁정의(太醫)나 약물요법 담당의(尙方)에 명하여 솜씨 있는 도자(屠者)와 함께 왕손경을 자르고 찢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오장을 계량하고 죽침(竹筵)을 써서 그 脈의 줄거리를 더듬어 좇아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로를 인지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으로 병의 치료가 가능해진다."
5) 『東齊記事』 卷1 "慶歷中, 廣南西路歐希范以白崖山蠻蒙趕內寇, 破環州及諸寨. 時天章杜待制祀, 自京西轉運使徙廣西. 既至, 得宜州人吳香等爲鄕導, 攻破白崖等寨, 複環州, 因說降之. 大犒以牛酒, 既醉, 伏兵發, 擒誅六百餘人. 後三日, 始得希範, 醢之以賜溪洞諸蠻 ; 取其心肝, 繪爲≪五藏圖≫, 傳於世. 其間有眇目者, 則肝缺漏."
6)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7) 한봉재. 華佗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8) 심현아, 황성연, 엄동명. 華佗玄門內照圖의 藥物炮製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2). p.76.

고려하여 도교의학 관련 문헌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臟腑圖의 개요

1) 『연라자내경도』

『연라자내경도』의 개요에 대하여 金[9]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五代時期로 추정되는 煙蘿子의 內境圖는 『正統道藏 · 修眞十書 · 雜著捷徑』에 수록되어 있다. 『修眞十書』는 南宋代에 石泰가 편찬하였으며[10], 『잡저첩경』에는 煙蘿子 撰으로 보이는 그림 6폭이 있으며, 그 중 「內境正面之圖」、「內境背面之圖」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煙蘿子의 生卒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9세기 말부터 10세기 전반에 생존했던 도사이다[11]. 陳國符의 고증에 따르면, 煙蘿子는 燕眞人이라 불려 王屋里(山西省 陽城縣)의 사람으로, 後晉 · 天福 년간(936-941)에 "煙霞養道의 訣을 얻었다. 宅邊의 井裏에서 靈異한 參을 얻었으므로 집을 들어서 이를 먹고, 마침내 상승함을 얻었다"[12]고 한다. 또한 斬土英의 『五臟圖考』에서 "煙蘿子의 활동 시기는 唐 말엽에서 五代가 분명하다."[13]고 하였다.

2) 『화타선생내조도』

『中國醫籍大辭典』에 의하면 "『현문맥결내조도』는 2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漢代 華佗(名은 炘, 字는 元化)가 책으로 엮었다. 三國時期(약 234년)에 成書되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화타현문맥결내조도』이다. 卷上에는 十二經脈, 經脈의 氣血, 臟腑內景 등의 내용이 있는데, 내용 중 많은 부분은 『黃帝內經』, 『甲乙經』과 扁鵲의 이론에서 기원하였다. 卷下에는 十二經脈直訣, 四時平脈, 臟腑成敗, 臟腑病機, 臟腑用藥 등의 내용과 함께 附圖 12幅이 실려 있다. 본 서적은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으므로 脈學과 臟腑理論 연구의 참고서가 된다. 현재에는 明의 嘉靖년간의 판각본과 청대의 抄本이 존재한다."[14]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현문맥결내조도』의 서문이 1273년(至元癸酉)에 儒學敎授 孫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喉嚨에 대한 내용 중 宋代 歐希範 해부도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華佗의 이론뿐만 아니라 宋代 이후의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成書 시기는 三國時期가 아닌 宋金元時期로 보았다. 『현문맥결내조도』에는 臟腑와 관련된 그림으로 「人臟正面背面二圖」, 「肺側圖」, 「心氣圖」, 「氣海膈膜圖」, 「脾胃包系圖」, 「分水闌門圖」, 「命門大小腸膀胱系圖」가 있다. 이중 『연라자내경도』의 「內境正面之圖」와 「內境背面之圖」와 비교되는 「人臟正面背面二圖」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하 '華佗' 관련 內照圖는 『화타선생내조도』로 표기한다.

2.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의 臟腑 개념 비교

『연라자내경도』는 장부 기관에 대하여 오장 각각의 「총론」과 「주제점내경론」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화타선생내조도』는 「人臟正面背面二圖」에서 기술하고 있다. 『연라자내경도』에서는 장부에 대한 기술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없었고,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天氣의 통로인 喉嚨과 地氣의 통로인 咽門을 중심으로 六臟과 六腑를 陰陽의 경맥으로 명명하고 藏神 및 出納水穀糟粕이라는 기능으로 系統化하여 정리를 하고 있다[15]. 이에 『화타선생내조도』의 「인장정면배면이도」의 배열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다.

9)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p.90-91.
10) 王淑民, 羅維前. 形狀中醫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42.
11)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91.
12) 陳國符. 道藏源流考下. 北京. 中華書局. 1963. p.286.
13) 斬土英. 五臟圖.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74.
14)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43.
15)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7. "喉嚨已下言六臟, 爲手足三陰. 咽門已下言六府, 爲手足三陽. 蓋諸臟屬陰爲裏, 諸府屬陽爲表. 以臟者藏也, 藏諸神而精神流通也. 府者庫府, 主出納水穀糟粕轉輸之謂也"

1) 喉嚨

「주제점내경론」에서는 "人有咽有喉, 咽則嚥物, 喉則通氣, 二竅各不相離, 喉在前, 咽在後, 喉主出納, 咽則吞之而已. 喉字從侯, 自內出者, 喉達之于外, 自外入者, 喉達之于內. 所謂呼者, 因陽出; 吸者, 隨陰入. …… 喉應天氣, 爲肺之系, 下接肺經, 爲喘息之道. 自喉嚨而通於肺"[16]라고 하여 咽喉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과 호흡과 음식물의 통로라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喉에 대해서는 肺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喉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喉嚨아래에는 六臟이 있으며, 喉는** 天氣**에 應하니** 肺之系**이다**……『九墟』**에서는 喉嚨은 숨쉬는 통로로써 그 속이 빈 관처럼 생겨서 숨을 쉴 수 있다.**…… **喉는 숨쉬는 통로이고,** 咽中**으로는** 水穀**이 내려가는 곳이며** 喉嚨**은 아래로 폐의 양측** 葉**의 사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咽喉**를 지금 함께 그려놓았다.** …… 宋代**의 화공** 宋景**이** 歐希范**의 해부도를 그릴 때,** 喉中**에 구멍이 세 개라고 하였으나,** 喉中**에 구멍이 세 개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즉,** 水穀**과** 氣**가 각각 하나의 구멍으로 내려간다. 폐의 아래에는 구멍이 없으므로 (**喉**에** 水穀**과** 氣**의 통로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水穀**이 어떻게** 下焦**로 전달되겠는가?"**[17]라고 하여 喉嚨이라는 기관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의 통로 喉와 수곡의 통로 咽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고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腎足少陰經의 마지막의 "已上六臟也"[18]의 의미와 연계해서 생각하면 喉嚨은 天氣를 肺로 전달하고 나머지 五臟 역시 水穀이 통하지 않고 氣만 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咽은 통하여 水穀이 下焦까지 전달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喉嚨 혹은 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가 차이가 없다.

(1) 肺手太陰經

「폐장총론」에서는 "魄在肺, 爲尙書, 屬金, 秋旺, 其色白, 在方爲庚辛, 在象爲白虎, 在道爲義, 在卦爲兌, 其形爲華蓋. 見於內者爲膚, 見於外者爲毛, 以鼻爲戶, 以大腸爲府, 受一心之制伏, 而驅用於肝, 得脾則盛, 見腎則滅, 怕冷成嗽疾, 食苦多則傷肺也."[19]라고 하여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肺下無竅, 四有空行, 以分布清濁之氣而爲氣管. 肺之下有心, 心之下有膈膜與脊協, 周回相著, 遮蔽濁氣不上薰於心肺, 所謂膻中也."[20]라고 하여 폐의 아래에 구멍이 없어서 수곡의 소통과 관련이 없음과 해부학적 위치가 심장의 위에 있으면서 횡격막의 위에 심장과 함께 위치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黃帝의 書를 인용하여 **"폐는 모든** 臟**의 가장 위에 위치하며,** 藏眞(胃氣)[21]**이** 肺**로 높이 올라가니,** 營衛陰陽**의 기가 행하는 것이다. 폐의 모양은 사람의 어깨와 비슷해서 좌우 양측으로 펼쳐져 있으며, 그 속에 24개의 구멍이 있어서 모든** 臟**의** 清濁之氣**가 분포하는** 氣管**이 있다고 하였으며, 즉 나머지 장을 서로 돕는 기관이며,** 喉嚨**과 연계된다"**[22]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 문헌의 肺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계승하였고, 藏眞(胃氣)이 폐에 도달하여 營衛之氣의 순행이 일어난다고 하

16)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6.

17)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7. "喉嚨已下六臟, 喉應天氣, 乃肺之系也……『九墟』云: 喉嚨喘息之道, 其中空長, 可以通氣息.……蓋喉中爲息道, 咽中下水穀, 其喉嚨下接肺兩葉之間, 與今所繪者同. 若吳簡序宋景所畫希範喉中三竅者, 非果喉中具三竅, 則水穀與氣各從一竅而俱下, 肺下無竅, 何由傳道水穀入於下焦."

18)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0.

19)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20)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21)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8. "姚止庵云 素問經注節解. 五臟旣以胃氣爲本, 是胃者五臟之眞氣也, 故曰藏眞."에 의거하여 胃氣로 번역하였음.

22)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8. "肺爲諸臟之上蓋, 藏眞高於肺, 以行榮衛陰陽也. 肺之形似人肩, 二布葉, 中有二十四空行列, 以分布諸臟清濁之氣, 而爲氣管. 乃相輔之官也, 在喉嚨氣系之下."

였다. 그리고 폐에 淸濁之氣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장에 대한 도움을 준다고 하였을 뿐,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으며, 「선명오기」와 「구침론」에서 언급된 '肺藏魄'과 같은 수준의 간단한 藏神에 관한 언급도 없다.

(2) 心手少陰經

「심장총론」에서는 "神在心爲帝王, 又爲絳宮, 爲靈臺, 爲中丹田, 屬火, 太陽之精, 上應熒惑, 夏旺, 其色赤, 在方爲丙丁, 在象爲朱雀, 在道爲禮, 在卦爲離, 其形如未開蓮花有三葉, 見於內者爲脈, 見於外者爲色. 以口舌爲門戶, 小腸爲府, 受腎之制伏, 而驅用於肺, 得肝則盛, 見脾則滅. 爲五臟之主, 正則辟邪, 然多食鹹則傷心, 切宜愼之."[23]라고 하여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肺之下有心, 心之下有膈膜與脊協, 周回相著, 遮蔽濁氣不上薰於心肺, 所謂膻中也.…… 心有大者, 邪者, 直者, 有竅者, 無竅者, 了無相似.…… 與橫膜相枯而黃脂漫包者, 眞心也."[24]라고 하여 해부학적 위치가 폐의 아래 횡격막의 위에 있으며, 누런 기름덩이에 쌓인 것이 심이라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黃帝의 書를 인용하여 **"心의 모양은 아직 피지 않은 연꽃과 비슷하며, 가운데 9개의 구멍이 있고,** 天氣**와 통하며** 神**이 거처한다고 하였다.** 藏眞**(**胃氣**)가** 心**으로 통하니,** 心**이** 血脈之氣**를** 藏**하여 인체의** 君**이 된다.** 肺**는** 心**의 위에 있는 뚜껑이므로** 心**은** 肺**의 아래에 있다"**[25]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神之宇也'라고 하여 「선명오기」와 「구침론」에서 언급된 '心藏神'과 같은 수준의 간단한 藏神에 관한 언급만 있고,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으며, 心의 형상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의 내용을 계승하고 藏眞의 도움으로 心主脈의 역할이 수행됨을 기술하였다.

(3) 心包手厥陰經

『연라자내경도』에는 心包에 대한 별도의 總論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眞心不受邪, 其病者, 心包也, 所謂手心主是也, 在心下橫膜之上, 堅膜之下, 與橫膜相枯而黃脂漫包者, 眞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包絡也."[26]이라고 하여 心을 싸고 있는 기관이며, 心을 대신하여 邪氣를 받는다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진짜** 心**은** 邪**의 침범을 받지 않으며** 手心主**가 대신 받는데,** 手心主**가** 心包**이다."**[27]라고 하였고, 『類纂』을 인용하여 "手厥陰心包經**이** 手少陽三焦經**과** 表裏關系**를 이루는 경맥이다"**[28]라고 하였으며, **"지금의** 臟象圖**와 비교시** 心下**의 횡격막 윗 부분과** 膏**(가슴 밑의 작은 비계)의 아래에 위치하고 횡격막과 함께 서로 붙어있고, 누런 기름으로 심장을 싸고 있다. 기름의 바깥쪽은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있어서** 心**과** 肺**에 연결되는데, 이것이** 包絡**이다."**[29]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心包經이 三焦經과 표리 관계에 있는 경맥임을 밝히고, 심포라는 심장을 싸고 있는 구조물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4) 脾足太陰經

「비장총론」에서는 "志在脾, 爲丈夫, 屬土, 四季旺,

23)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24)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25)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8. "黃帝書云: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孔, 以道天眞之氣, 神之宇也. 其藏眞通于心, 心藏血脉之氣也 ,而爲身之君. 以肺爲上盖, 故心在肺之下."

26)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27)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178-179. "明眞心不受邪, 故手心主則心包也"

28)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手厥陰心包之經, 所謂一陰也. 一名手心主, 其經與手少陰三焦爲表裏."

29)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今以臟象校之, 在心下橫膈膜之上, 堅斜膈膜之下, 與橫膜相粘, 其處黃脂浸包者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此包絡也."

色黃, 在方爲中央, 在道爲信, 其形如刀鐮. 見於內者爲藏, 均養心腎肝肺, 見於外者爲肉, 以唇齒爲戶, 受肝之制伏, 而驅用於腎, 得心則盛, 見肺則滅, 喜甜好溫, 胃神附之, 怕寒忌冷, 磨則進食身安, 否則病.若食酸多則傷脾, 切宜省之."[30] 라고 하여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道,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五臟總論과 달리 象神, 卦에 대한 내용은 없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膈膜之下有脾胃肝膽焉. 脾者, 土也, 居胃之上, 與胃膜相連, 所以埤諸胃."[31] 라고 하여 脾는 胃肝膽과 함께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있으며, 土의 속성을 가지며 胃보다 위에 위치하므로 나머지 육부보다 해부학적으로 위쪽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黃帝의 書를 인용하여 **"脾의 모양이 말발굽과 유사하며, 胃를 싸고 있는데, 흙과 같은 형태라고 하였다. 경락의 기는 가운데 모이고 진실로 신령스러운 氣를 운영하므로** 意之舍也**라고 한다.** ……脾**는** 中焦**에 위치하면서 나머지** 四臟**을** 營養**하는 것을 주관하는데,** 呼吸**을 통하여** 水穀**의** 氣**를 받아들인다. 위로는** 心肺**가 있고, 아래로는** 肝腎**이 있으므로 가운데 있다고 한 것이고,** 藏眞**이** 脾**를 영양하면** 脾**가** 肌肉之氣**를 간직하여(살이 찌고),** 諫議大夫**가되고 또** 倉廩之官**이라고도 불린다."**[32] 라고 하였고, 「선명오기」와 「구침론」에서 언급된 '脾藏意'와 같은 수준의 간단한 藏神에 관한 언급만 있고,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리고 脾라고 지칭한 기관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설명과 藏眞을 공급받아 脾主肉의 작용과 나머지 四臟을 영양하는 기능이 영위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肝足厥陰經

「간장총론」에서는 "魂在肝, 肝爲丞相, 屬木, 春旺, 其色青, 在方爲甲乙, 在象爲青龍, 在道爲仁, 在卦爲震, 其形有七葉. 膽爲將軍, 在肝左邊第四葉內, 見於內者爲筋, 見於外者爲爪, 以目爲戶, 以膽爲府, 受肺之制伏, 而驅用於脾, 得腎則盛, 見心則滅也. 然食辛多則傷肝, 切須戒之."[33]라고 하여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膈膜之下有脾胃肝膽焉. …… 肝者, 木也, 陰未退聽吁之而出, 故其治在左, 其位在右. …… 肝有獨葉者, 有二葉者, 有三葉者.…… 又云: 腎一在肝之右微下,…… 豈知足厥陰受病, 則舌捲而卵縮, 況刀鋸之恐耶."[34]고 하여 肝이 횡격막 아래에 있으며, 木의 속성을 가진 장기로 陰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뻗어나오는 성질(陰中之陽)을 지녔으므로 치료에 있어서는 좌측으로 배치하였고 실재 위치는 우측이라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黃帝의 書에서는** 肝**은 두 개의 조각과 하나의 작은 조각이 있다고 하였는데, 갑옷의 비늘 조각처럼 생겼으며, 각각의 조각에** 支絡血脈**이 분포되어 있으며,** 陽和之氣**의** 宣發**을 담당하므로,** 魂之宮[35]**이다.** 藏眞**이 간에 도달하면,** 肝**은** 筋脈之氣**를 간직하여(근맥에 힘이 넘쳐)** 將軍之官**이 된다. 그 치료는 좌측에 있으나, 지금의** 臟腑圖**와 비교해보니, 지금의 장부도에는 간은 오른쪽 옆구리에 있었으며, 우측** 腎**의 앞쪽에** 胃**와 나란하게 있어서 위와 소장의 우외측에 있다.**"[36]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肝을 '魂之宮'이라고 하여 「선명오기」와 「구침론」에서 언급된 '肝藏魂'과 같은 수준의

30)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31)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32)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黃帝書云:脾形似馬蹄, 內包胃脘, 象土形也. 經絡之氣,交歸於中, 以營運真靈之氣, 意之舍也. 又云:脾爲陰臟, 位處中焦, 主養四臟, 故呼吸以受穀氣. 以其上有心肺, 下有腎肝, 故曰在中, 而藏眞濡於脾, 脾藏肌肉之氣, 爲諫議大夫, 又曰倉稟之宮."
33)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34)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35) 魂之宮: 원문에는 魄之宮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맥상 魂之宮의 誤字로 보았다.
36)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黃帝書云: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拆之象, 各有支絡血脈於中, 以宣發陽和之氣, 魄之宮也. 故藏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也, 爲將軍之官,其治在左, 然以今之臟象校之, 則肝在右脅, 右腎之前, 並胃, 而胃與小腸之右外."

간단한 藏神에 관한 언급만 있고,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리고 肝의 치료와 관련된 이론에서는 좌측에 있지만, 실제의 위치에 근거한 臟腑圖에서는 우측 옆구리 쪽에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고 藏眞을 공급받아 肝主筋의 기능이 발휘된다고 기술하였다.

(6) 腎足少陰經

「신장총론」에서는 "精在腎, 又號玄英, 屬水, 冬旺, 其色黑, 在方爲壬癸, 在象爲玄武, 在道爲智, 在卦爲坎. 有二雙, 在左爲烈女, 右爲命門, 生帶子透入泥丸宮. 見於內者爲骨, 見於外者爲髮, 以耳爲戶, 膀胱爲府, 受脾之制伏, 而驅用於心, 得肺財盛, 見肝則滅, 食甘多則有傷矣."[37]라고 하여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內, 戶, 外, 六府, 傷味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形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腎有二, 精所舍也. 以腎爲事, 元氣屬焉, 形如江豆相並, 而曲附於脊膂, 外有脂裹, 裹白外紫, 有絲二道上系於心, 下連於腎, 通而爲一, 所謂坎南離北, 水火相感. 腎雖有二, 其一曰命門, 與臍相對. 黃庭云: 兩部水王對生門, 又曰: 後有密戶前生門. 生門者, 臍也, 嬰兒在母腹中, 取氣於臍管, 母呼亦呼母吸亦吸, 正與密戶相對, 所謂臍者如此"[38]라고 하여 腎의 형태와 역할 그리고 心과의 연계를 설명하고 左腎右命門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다. 또한 命門과 상대되는 체표의 기관으로 臍를 매우 중시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황제의 서를 인용하여 **"腎臟이 두 개가 있으며, 모양은** 豇豆**처럼 생겼으며 두 개의 구부러진 부분이 척추의 근육에 붙어있다고 하였다. 그 외측은 기름에 쌓여 있고, 속은 희고 겉은 검으며,** 精**을 저장한다. 그러므로** 藏眞**이** 腎**으로 내려가면,** 腎**이** 骨髓之氣**를 저장한다.** 腎**은** 作强**의 기관으로** 伎巧**가 나온다. 그 위치는 옆구리 아래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臟象圖**와 비교하면, 횡격막 아래 척추의** 脂膜 **가운데에 있으며 두 개의** 系**와 연결되어 있다. 위로는** 心系**, 아래로는** 兩腎之系**가 서로 연결되어 통하고 있다."**[39]고 하였다. 腎의 해부학적 위치와 형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骨髓之氣를 저장하고 作强之官으로 기교가 나온다는 『내경』의 학설을 그대로 따랐다. 여기에서도 「구침론」에서 언급된 '腎藏精志'과 같은 수준의 간단한 藏精에 관한 언급만 있고,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리고 藏眞의 공급에 의하여 腎主骨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腎足少陰經의 문장 마지막 "已上六臟也"는 喉嚨의 "喉嚨 아래에 六臟이 있다"[40]는 말과 댓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腎足少陰經의 문장이라기 보다는 肺之系인 喉嚨과 관련된 문장의 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咽門

「주제점내경론」에서는 "咽則因物而後嚥焉, 故咽字從因. 咽應地氣, 爲胃之系, 下連胃院, 爲水穀之路, 自咽門而入於胃, 咽爲扼要之地, 又謂之嗌焉."[41]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喉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咽門** 아래에 六府**가 있으며,** 咽**은** 地氣**와 응하며** 胃**의 계통이다.** 胃**는** 土**에 속하고** 坤**은** 地**를 뜻하며,** 坤**도** 土**이므로** 咽**은** 地氣**에 응하는 것이다.** 咽**의 아래를** 胃脘**이라하며,** 水穀**의 길이다. 무릇** 咽門**이** 水穀**을 받아들이면,** 胃脘**으로부터** 胃中**으로 들어간다.** 咽**은 삼키는 것이며, 물질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嗌**은 좁고 중요한 곳을 뜻한다.** 黃帝**의 책에서** 地氣**가** 嗌**으로 통한다고 하였는**

37)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8-5539.

38)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7.

39)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179-180. "黃帝書云: 腎臟有二, 形如豇豆, 相並而曲附於膂筋. 其外有脂裹, 裏白外黑, 主藏精, 故藏眞下於腎, 腎藏骨髓之氣也. 腎者作強之官, 伎巧出焉。其位下連於脊. 今以見圖臟象校之, 則在腸下, 貼脊膂脂膜中, 有系二道, 上則系心, 下則連二腎之系相通"

40)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7. "喉嚨已下言六臟, 爲手足三陰."

41)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6.

데, 嗌은 咽이다. 지금 臟腑圖를 보니 咽이 喉의 뒤에 그려져 있는데, 고금의 서적이 모두 그렇다. 그런데 歐希范의 그림은 틀렸다."[42]라고 하여 咽은 해부학적으로 喉의 뒤에 위치한 기관으로 地氣를 받은 水穀이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하였고, 胃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歐希範五臟圖」에서 咽門과 喉嚨의 위치를 잘 못 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咽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가 차이가 없다.

(1) 胃足陽明經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膈膜之下有脾胃肝膽焉. 脾者, 土也, 居胃之上, 與胃膜相連, …… 胃之下有小腸, …… 凡胃中腐熟水穀, 其氣自胃之上口, 曰賁門, 傳於肺, 播於諸爬; 其滓穢自胃之下口, 曰幽門, 傳入於小腸"[43]라고 하여 胃가 횡격막 아래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脾의 아래에 있고, 胃中에서 水穀을 腐熟시켜 전신 영양에 필요한 營血을 생산하고, 찌꺼기를 小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胃는 창고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나머지 四臟을 기른다.**"[44]고 하였고 "**오장은 모두 胃로부터 氣를 받으므로 胃가 오장의 근본이다**"[45]라는 「옥기진장론」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또한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 陰陽揆度以爲常也."라는 「경맥별론」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오장별론」의 "胃者水穀之海, 六府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따라서 胃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서 언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라자내경도』에 비하여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食氣 또는 胃의 부숙작용 이후 발생한 精氣가 心肺를 통하여 전신에 전달되고 영양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즉, '胃가 오장의 근본이다'라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였다고 판단된다.

(2) 膽足少陽經

『연라자내경도』에서는 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膽에 대해서는 「영란비전론」의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을 그대로 인용하고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淸淨之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또한 『내경』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서 언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小腸手太陽經

「주제점내경론」에서는 "胃之下有小腸, 小腸之右有大腸, 大腸之側膀胱也. 小陽爲受盛之官, 化物出焉. …… 其滓穢自胃之下口, 曰幽門, 傳入於小腸, 自小腸下口, 曰闌門, 泌別而水入膀胱, 其滓穢則入大腸"[46]이라고 하여 胃의 아래에 小腸이 위치하면서 胃에서 찌꺼기를 받고 闌門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방광으로 전달하고 그 나머지를 대장으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도 小腸에 대해서는 「영란비전론」의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47]의 문장을 인용하였고, 그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는 "**胃에서 腐熟된 水穀의 찌꺼기가 위의 下口를 통하여 小腸의 上口로 전달되고, 小腸의 下口에서 泌別淸濁이 일어나서 수분은 膀胱의 上口로 들어가고 그 찌꺼기는 大腸 上口로 전달된다.**"[48]고 하였다. 이는 위장-

42)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0. "自咽門已下六府, 咽應地氣, 爲胃之系也. 以胃屬土, 坤爲地, 坤土也, 故應地. 咽之下者, 胃臟水穀之道, 凡咽門承受水穀, 自胃院而入於胃中. 咽, 嚥也, 言可嚥物也. 又謂之嗌, 言阨要之處. 黃帝書曰: 地氣通於嗌, 嗌, 咽也, 以今臟象, 咽在喉之後, 合古書爲是, 於歐本則非."

43)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44)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0. "胃者倉廩之官, 布養四臟"

45) 「素問·玉機眞藏論」 "五藏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藏之本也."

46)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47) 刺法論, 靈蘭秘典論

48)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自胃之下口傳久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泌別, 而水入膀脫上口, 其滓穢傳人大腸上口. 與今

소장-대장의 순서로 전달되는 수곡의 이동경로는 정확하게 언급하였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소변의 생성에 관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위생회」에서 "下焦者, 別廻腸, 注于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幷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이라하여 大腸에서 방광으로 수분이 스며든다고 언급한 것과도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의학입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동의보감』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4) 大腸手陽明經

「주제점내경론」에서는 "大腸以其四屈而受小腸之穀, 所謂傳送之官也"[49]라고 하여 小腸에서 찌꺼기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大腸에 대해서 **"回腸이라고도 하며, 구불구불하게 생겼고** 小腸**의** 水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回腸**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肺**의** 府**이며,** 黃帝**의 서적에서는** 大腸**은** 傳道之官**이며** 變化**가 거기에서 생긴다."**[50]라고 하였다. 또한 大腸의 아래에 廣場 즉, 肛門을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수레의 바퀴 축을 연결하는 부위(車釭)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肛門**이라고 하는데, 일명** 脢腸 **또는** 魄門**이라고 한다."**[51]라고 하여 大腸에 回腸과 脢腸을 포함시켜서 해석하였다. 따라서 현대 해부학에서 回腸을 小腸의 하단부로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廣腸, 脢腸, 肛門, 魄門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肛門과 魄門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廣腸을 항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肛門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관한 내용은 『의학입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52]

(5) 膀胱足太陽經

「주제점내경론」에서는 " 自小腸下口, 曰闌門, 泌別而水入膀胱, ……. 膀胱一名胞, 胞者鞄也. 以虛受水, 爲津液之府, 故云膀胱者, 胞之室也.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53]라고 하여 방광은 가죽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小腸으로부터 걸러진 수분이 방광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이다.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癃閉가 되고 소변을 참지 못하면 遺溺가 된다고 하였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膀胱에 대해서는 '胞'라고하며 속이 빈 가죽처럼 생겼다고 하였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액을 받아들여 津液之府가 된다고 설명하여 방광의 기능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내경』의 설을 인용하여 "방광은 州都之官이며 津液을 간직하고 氣化하면 소변이 배출된다."[54]는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맥요정미론」의 "水泉不止者, 是膀胱不藏也. 得守者生, 失守者死."와 「선명오기」의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를 연결하여 小便不禁의 증상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生死를 구별하는 중요한 정보임을 표현하였다.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6) 三焦手少陽經

「연라자내경도」에서는 三焦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장정면배면이도」에서는 三焦의 부위와 기능에 대해서 「難經・31難」의 문장[55]을 인용하여 三焦의

所繪臟象同."

49)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50)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一名回腸, 以其回屈而受小腸之穀, 因以名之也. 乃肺之府也. 黃帝書曰: 大腸者, 傳導之官, 變化出焉."

51)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廣腸又曰肛門. 言其處似車**釭**形, 故曰肛門. 卽廣腸也. 一名直腸, 一名白門."

52)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又曰肛門 言其處似車缸形也."

53)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54)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膀胱爲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55)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2.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玉堂下一寸六分, 膈兩乳間陷者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熱水穀. 其

부위별 水穀의 대사를 기술하였고, 『내경』에서 三焦의 주요 機能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上焦는 「조경론」의 "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과 「결기」의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를 이용하여 **"상초로부터** 皮膚分肉之間**을 데우는** 陽氣**가 나오며** 上焦**에서 발생하는 기의 양상이 안개와 같다"**[56]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上焦에서 衛氣가 발생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焦에 대해서는 **"**中焦**는** 水穀**이 변화를 하는 곳으로** 血**이 나와서** 五臟六腑**와** 身體**를 영양한다."**[57]고 하였으며, 「영위생회」의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를 인용하고, 말미에 "故言中焦如漚"라고 하였는데, 이는 中焦에서 營血이 발생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下焦에 대해서는 "下焦는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주관하고 때가 되면 배출한다. 그래서 出而不內라고 한다"[58]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사객」에서 "五穀入于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故宗氣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于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라 하여 비위로 들어온 수곡이 糟粕, 津液(→營氣), 宗氣(→衛氣)로 변화된다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화타현문내조도』에서는 「사객」의 내용에 "小腸의 下口에서 泌別淸濁한다"는 내용을 개념을 추가하여 하초에서 分別淸濁함으로써 소변이 방광으로 들어가 배출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화타현문내조도』에서는 三焦의 기능을 水穀으로부터 衛氣, 營氣(營血), 水分를 순차적으로 인체로 뽑아내는 역할로 보았으며, 「영위생회」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문장에 대하여 水穀이 胃를 통하여 들어와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衛氣, 營氣(營血), 水分이 水穀으로부터 인체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Ⅲ. 考 察

『화타선생내조도』에 기술된 내용들은 한의학 이론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오장육부의 생리와 병리 그리고 臟腑圖까지 깊이 다루고 있다. 또한 『華佗內照圖』 혹은 『內照圖』라는 문헌은 李梴의 『醫學入門』의 「臟腑總論」에 많이 인용되었으며,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도 중요한 의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의서라고 평가된다[59].

傳世本 『華陀先生內照圖』는 그 서문이 1273년(至元癸酉)에 儒學敎授 孫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喉嚨에 대한 내용 중 宋代 歐希範 해부도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華佗의 이론뿐만 아니라 宋代 이후의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成書時期는 三國時期가 아닌 宋金元時期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문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문헌에는 인체의 장부를 표현한 상당히 유사한 모양의 그림이 존재한다. 煙蘿子의 內境圖에서 「內境正面之圖」、「內境背面之圖」는 『화타선생내조도』와 肝脾의 위치가 다르며, 나머지 장부의 위치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두 문헌에서 장부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臟腑圖象의 차이, 五臟에 대한 記述上의 특징, 六腑에 대한 記述上의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臟腑圖象의 차이

『연라자내경도』와 『화타현문내조도』의 人臟正面背面二圖의 가장 큰 차이는 肝과 脾의 위치이다. 『煙蘿子 내경도』의 경우 肝을 좌측에 그리고 脾를 우측에 그려넣었고, 『화타현문내조도』의 경우에는 실

治在齊旁. 下焦者, 在齊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淸濁, 主出而不內, 以傳導也"

56)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2. "上焦主出陽氣, 溫于皮膚分肉之間, 若霧露之溉焉"

57)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2. "中焦主變化水穀之味, 出血以營五臟六腑及身體也"

58)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2. "又下焦主通利溲例, 以時傳下, 故曰出而不內."

59) 한봉재 외 7인. 華佗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 편제.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4). p.16.

제의 해부학적 위치에 가깝도록 肝을 우측에 그려 넣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해설의 과정에서 "肝者, 木也, 陰未退聽吁之而出, 故其治在左, 其位在右."[60]라고 하여 肝이 우측에 있었음을 알았고, 의도적으로 좌측에 그렸음을 밝혔다. 따라서 실제 해부를 통한 장부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지식은 두 문헌 모두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Fig. 1. Yanluozi's visceral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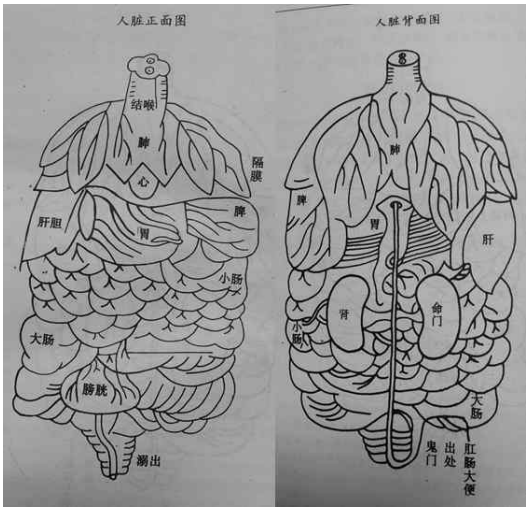

Fig. 2. Visceral figure of the『the huatuoxuanmenneizhaotu』

두 문헌에서 肝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한 배경은 五臟六腑에 대한 기술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연라자내경도』는 內丹의 수련 과정에서 存思法의 실행에 필요한 이론적 설명과 存思 도구로써의 五臟神 개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五臟 관련 總論을 별도로 두고 色, 象神, 異名 및 職能 등의 정보를 기술하였고, 해부지식에 기반한 내용은 「주제점내경론」에서 『내경』과 『난경』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 『화타선생내조도』는 『화타현문내조도』로도 불린다. 여기에서 '玄門'과 '內照圖'라는 도교의 용어가 서명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작 『화타선생내조도』의 「인장정면배면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편에 걸쳐서 장부의 명칭과 經脈의 명칭을 함께 나란히 기술하였고, 십이경맥 체계에 따라 表裏 관계를 기술하기도 하였다. 십이경맥 체계에 기반하여 臟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연라자내경도』의 五臟 관련 總論에서 언급하지 않고 「주제점내경론」에서만 언급한 心包에 대해서도 다른 오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고, 心包와 表裏 관계에 있는 三焦에 대하여 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 五臟에 대한 記述上의 특징

1) 『연라자내경도』의 「오장총론」과 「주제점내경론」에서의 오장

「오장총론」에서는 肝心脾肺腎의 다섯 장기에 대하여 각각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肝을 예로 들면, "魂在肝, 肝爲丞相, 屬木, 春旺, 其色青, 在方爲甲乙, 在象爲青龍, 在道爲仁, 在卦爲震, 其形有七葉. 膽爲將軍, 在肝左邊第四葉內, 見於內者爲筋, 見於外者爲爪, 以目爲戶, 以膽爲府, 受肺之制伏, 而驅用於脾, 得腎則盛, 見心則滅也. 然食辛多則傷肝, 切須戒之."[61]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五行歸類와 대부분 같지만, 五體를

60)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61) 石泰.『正統道藏』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8.

'內'로 표현하고 脾에 '藏'으로 배속하였고, 五官을 '戶'로 표현하고 脾의 口를 心의 '口舌'로、腎의 齒를 脾의 '脣齒'로 배속하였다. 또한 五華를 '外'로 표현하고 心의 面을 '色'으로 脾의 脣을 '肉'에 배속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五行歸類와 차이가 있다.[62] 또한, 異名 및 職能과 象神에 관한 내용은 이전의 『내경』과 같은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외에도 宋代人으로 추정되는 朱提點은 「주제점내경론」에서 실제 解剖된 人體의 형태와 기능을 자세하게 記錄하였다. 그는 心을 道家의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음식물의 수포과정을 통한 장부의 해석, 인후·단중·간·신장에 관한 형태 묘사도 있다[63]. 肝을 예로 들면, "肝者, 木也, 陰未退聽吁之而出, 故其治在左, 其位在右 …… 肝有獨葉者, 有二葉者, 有三葉者."[64]고 간장의 위치와 형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러한 오장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기술은 『화타선생내조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五臟에 대한 형태 묘사와 異名 및 象神에 대한 기록은 후대의 『醫方類聚』의 五臟神圖의 내용과 부합되며, 道敎 의학의 수련법인 存思을 이용한 內丹의 수련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기존의 『내경』의 학설과 해부학적 실제에 기반한 논술이 많다. 다만, 장부의 모양과 기능을 설명하는 가운데 체표에서 관찰이 가능한 臍에 대하여 "腎有二, 精所舍也. 以腎爲事, 元氣屬焉 …… 腎雖有二, 其一曰命門, 與臍相對. 黃庭云: 兩部水王對生門, 又曰: 後有密戶前生門. 生門者, 臍也, 嬰兒在母腹中, 取氣於臍管, 母呼亦呼母吸亦吸, 正與密戶相對, 所謂臍者如此"[65]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命門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영향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나 『의학입문』의 「장부도」 뿐만 아니라 도교적 색채를 탈피하고 해부학적 사실에 중점을 둔 五臟圖에 해당되는 『유경도익』의 「內景圖」[66]까지도 모두 배꼽을 표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화타선생내조도』에서의 五臟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오장을 水穀이 통하지 않고 氣만 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咽喉 중 喉嚨이 숨쉬는 통로이며 天氣에 應하며 肺之系이고, 肺를 제외한 나머지 四臟 역시 肺를 통하여 營衛陰陽의 기가 행하여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五臟을 喉嚨 아래에 배속시켜 그 모양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十二經脈 체계에서 陰經을 모두 기술하였다. 때문에 『연라자내경도』의 五臟 관련 총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心包에 대해서도 나머지 五臟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을 하였다. 그리고 오장이 각자의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藏眞'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의 '藏眞'은 문맥상 水穀의 正氣에서 기원한 胃氣로 해석할 수 있다.

『연라자내경도』의 五臟總論과 비교 하면 '肝藏魂'과 같은 수준의 간단한 藏神에 관한 언급만 있고,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리고 肝의 치료와 관련된 이론에서는 좌측에 있지만, 실제의 위치에 근거한 臟腑圖에서는 우측 옆구리 쪽에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즉, 도교의학에서 內丹과 存思法의 시행에 필요한 五臟의 異名이나 象神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주제점내경론」은 기본적으로 실제 해부학적 관찰을 기반으로 기술한 내용과 『내경』에서 언급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화타현문내조도』의 五臟 내용과 특징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다.

3. 六腑에 대한 記述上의 특징

1) 「주제점내경론」

『正統道藏·修眞十書』에서는 六腑에 대하여 五臟總論 형식의 별도의 기술이 없다. 다만, 「주제점내경론」에 六腑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62)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93.
63)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94.
64)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65)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5537.
66) 李起熏. 內景圖와 修眞圖에 關한 硏究.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44-45.

이에 관한 「주제점내경론」의 咽, 喉 및 六腑 관련 全文은 다음과 같다.

"人有咽有喉, 咽則嚥物, 喉則通氣, 二竅各不相離, 喉在前, 咽在後, 喉主出納, 咽則吞之而已. 喉字從侯, 自內出者, 喉達之于外, 自外入者, 喉達之于內. 所謂呼者, 因陽出; 吸者, 隨陰入. 咽則因物而後嚥焉, 故咽字從因. 咽應地氣, 爲胃之系, 下連胃院, 爲水穀之路, 自咽門而入於胃, 咽爲扼要之地, 又謂之嗌焉. 喉應天氣, 爲肺之系, 下接肺經, 爲喘息之道. …… 胃之下有小腸, 小腸之右有大腸, 大腸之側膀胱也. 小陽爲受盛之官, 化物出焉. 凡胃中腐熟水穀, 其氣自胃之上口, 曰賁門, 傳於肺, 播於諸(爪+血); 其滓穢自胃之下口, 曰幽門, 傳入於小腸, 自小腸下口, 曰闌門, 泌別而水入膀胱, 其滓穢則入大腸, 大腸以其四屈而受小腸之穀, 所謂傳送之官也. 膀胱一名胞, 胞者鞄也. 以虛受水, 爲津液之府, 故云膀胱者, 胞之室也.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 近世刑人於市, 剖而見之, 乃云喉中有三竅, 一水一食一氣, 其誣甚矣."[67]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咽은 地氣를 받는 기관으로 胃와 관계가 있으며 물질을 삼킨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水穀이 咽을 통하여 胃로 들어가고, 胃中에서 營血이 나오고, 小腸으로 찌꺼기가 전해져서 泌別하여 수분을 膀胱으로 보내어 소변을 만들고, 찌꺼기는 다시 대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밝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六腑 中 膽과 三焦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화타선생내조도』에서의 六腑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六腑를 水穀이 지나는 기관으로 보고 咽과 연결시켜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咽에 대한 기술은 「주제점내경론」의 기술과 대등소이하다. 그러나 六腑에 있어서는 膽과 三焦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三焦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咽을 시작으로 胃, 膽, 小腸, 大腸, 膀胱, 三焦를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 胃에 대해서는 "오장은 모두 胃로부터 氣를 받으므로 胃가 五臟의 근본이다"[68]라고 주장하여 五臟이 모두 胃에서 생성된 氣를 받아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胃에서 생성된 기를 '藏眞'이라고 표현하였다[69][70][71][72][73]. 膽에 대해서는 「영란비전론」의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을 그대로 인용하고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淸淨之府라는 간단한 기술만 하였다. 小腸에 대해서는 **"胃에서 腐熟된 水穀의 찌꺼기가 위의 下口를 통하여 小腸의 上口로 전달되고,** 小腸의 下口에서 泌別淸濁**이 일어나서 수분은** 膀胱의 上口**로 들어가고 그 찌꺼기는** 大腸 上口**로 전달된다."**[74]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 소변의 생성에 관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에서 小腸의 기능에 대한 설명하면서 小腸이 泌別淸濁하여 소변을 분별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의견은 「영위생회」의 "下焦者, 別廻腸, 注于膀胱, 而滲入焉"의 내용과는 다른 의견이다. 大腸에 대해서는 「영란비전론」의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大腸 아래에 廣場과 肛門을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다. 膀胱에 대해서는 「영란비전론」의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그 모양이 가죽 자루처럼 생겨서 胞라고 불린다고 해설하였다. 三焦에 대해서는 『소문』과 『영추』의 여러 편에서 언

67) 石泰. 『正統道藏』 第 7冊 洞眞部 方法類 卷18 「修眞十書雜著捷徑」. 서울. 法仁文化社. 1987. pp.5536-5537.

68) "五藏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藏之本也."

69)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8. "肺爲諸臟之上蓋, 藏眞高於肺, 以行榮衛陰陽也."

70)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8. "黃帝書云: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孔, 以道天眞之氣, 神之宇也. 其藏眞通于心, 心藏血脉之氣也 ,而爲身之君."

71)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又云:脾爲陰臟, 位處中焦, 主養四臟, 故呼吸以受穀氣. 以其上有心肺, 下有腎肝, 故曰在中, 而藏眞濡於脾, 脾藏肌肉之氣, 爲諫議大夫, 又曰倉稟之宮."

72)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79. "故藏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也, 爲將軍之官, 其治在左"

73)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179-180. "黃帝書云: 腎臟有二, 形如豇豆, 相並而曲附於脊筋. 其外有脂裹, 裏白外黑, 主藏精, 故藏眞下於腎, 腎藏骨髓之氣也. 腎者作強之官, 伎巧出焉."

74) 高文鑄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181. "凡胃中腐熟水穀, 其滓穢自胃之下口傳久於小腸上口, 自小腸下口泌別, 而水入膀脫上口, 其滓穢傳人大腸上口. 與今所繪臟象同."

급한 三焦의 부위와 기능을 엮어서 三焦가 소변의 생성과 관련된 수액대사 뿐만 아니라, 水穀으로부터 衛氣, 營氣(營血), 水分를 순차적으로 인체로 뽑아내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았다. 즉, 「영위생회」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문장에 대하여 水穀이 胃를 통하여 들어와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衛氣, 營氣(營血), 水分이 水穀으로부터 인체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Ⅳ. 結 論

한의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臟腑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또한 신체 내부의 臟腑를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圖像 역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圖像은 현재의 관점에서 해부학적 실제 상황과 다른 圖像 역시 존재한다. 한의학에서의 臟腑에 대한 그림은 제작자의 의학적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도교의학에서는 신체 내부의 血肉筋骨臟腑를 표현한 것에 대하여 '內景', '內境'、'內照'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대 해부학과 차별되는 독특한 圖像을 제작하고 전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교의학의 관점에서 圖像을 그리고 해설한 『煙蘿子內境圖』와 도교의학의 성격이 많지 않은 傳世本 『華陀遺稿』의 『華佗先生內照圖(=華佗玄門內照圖)』의 연구를 통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한다.

1. 臟腑圖象 측면에서 『연라자내경도』에서는 肝을 좌측에 그리고 脾을 우측에 그려 넣었고, 『화타현문내조도』에서는 실제의 해부학적 위치에 가깝도록 肝을 우측에 그려 넣었다. 그러나 『연라자내경도』에서도 肝이 우측에 있었음을 알았고, 의도적으로 좌측에 그렸음을 밝혔다. 따라서 실제 해부를 통한 장부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지식은 두 문헌 모두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2.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에서의 臟에 대한 기술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연라자내경도』의 五臟總論에서는 肝心脾肺腎의 다섯 장기에 대하여 각각 神志, 異名 및 職能, 五行, 季節, 五色, 方位, 象神, 道, 卦, 形狀, 內, 戶, 外, 六府, 傷味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五行歸類와 대부분 같지만, 五臟의 異名 및 職能과 象神에 관한 내용은 이전의 『내경』과 같은 문헌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다. 象神에 대한 기록은 후대의 『의방류취』의 五臟神圖의 내용과 부합되며, 道敎 의학의 수련법인 存思을 이용한 內丹의 수련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주제점내경론」에서의 오장 관련 내용은 기존의 『내경』의 학설과 해부학적 실제에 기반한 논술이 많다. 다만, 장부의 모양과 기능을 설명하는 가운데 체표에서 관찰이 가능한 臍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命門과 견줄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 결과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나 『의학입문』의 「장부도」 뿐만 아니라 도교적 색채를 탈피하고 해부학적 사실에 중점을 둔 五臟圖에 해당되는 『유경도익』의 「내경도」까지도 모두 배꼽을 표기하게 되었다.

3) 『화타선생내조도』에서의 오장은 天氣에 상응하며 肺之系인 喉嚨의 다음에 기록하고 있으며, 十二經脈 체계의 입장에서 陰經을 모두 기술하였다. 때문에 『연라자내경도』의 五臟 관련 총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心包에 대해서도 나머지 五臟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을 하였다. 그리고 오장이 각자의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藏眞'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의 '藏眞'은 문맥상 水穀의 正氣에서 기원한 胃氣로 해석할 수 있다. 『연라자내경도』의 五臟總論과 비교 할 때 도교의 五臟에 각각 깃들어 있는 神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3.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에서의 육부에 대한 기술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연라자내경도』에서는 육부에 대한 오장총론 형식의 별도의 기술이 없고 「주제점내경론」에 육부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주제점내경론」에서는 咽喉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水穀이 咽을 통하여 胃로 들어가고, 胃中에서 營血이 나오고, 小腸으로 찌꺼기가 전해져서 泌別하여 수분을 膀胱으

로 보내어 소변을 만들고, 찌꺼기는 다시 대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밝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膽과 三焦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六腑를 水穀이 지나는 기관으로 보고 咽과 연결시켜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咽과 胃, 小腸, 大腸, 膀胱에 대한 기술은 「주제점내경론」의 기술과 대동소이하며, 膽과 三焦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三焦에 대해서는 「영추·영위생회」의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의 문장에 대하여 水穀이 胃를 통하여 들어와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衛氣, 營氣(營血), 水分이 水穀으로부터 인체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라자내경도』와 『화타선생내조도』에서는 小腸의 下口로 표현되는 蘭門에서 "泌別淸濁"하는 과정이 일어나 방광으로 수분이 스며들어가고 대장으로 찌꺼기가 간다고 보았다. 이는 「영위생회」의 "下焦者, 別廻腸, 注于膀胱, 而滲入焉"의 내용과는 다른 의견이지만,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에서 小腸이 "泌別淸濁"하여 소변을 분별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References

1. 金達鎬 編譯. 注解補注註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DH Kim trans.. Translated and annotated Hwangjenaegyeong-yeongchu. Seoul. Uiseongdang. 2002.
2. 김기욱, 문재곤 공역. 뜻으로 푼(대역·완역) 황제내경영추. 서울. 법인문화사. 2014.
   KW Kim, JG Moon trans.. Translated Hwangjenaegyeong-yeongchu. Seoul. Beob-inmunhwasa. 2014.
3. 김기욱, 장재석 공역. 뜻으로 푼(대역·완역) 황제내경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KW Kim, JS Zhang trans.. Translated Hwangjenaegyeong-somun. Seoul. Beob-inmunhwasa. 2014.
4. 王淑民, 羅維前. 形狀中醫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SM Wang, WQ Luo. Shape Chinese medicin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7.
5. 陳國符. 道藏源流考下. 北京. 中華書局. 1963.
   GF Chen. Taocangyuanliukaoxia. Beijing. Chunghwa Book co. 1963.
6.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靑島. 靑島出版社. 2003.
   LX Huang. Figures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tstion history. Qingdao. Qingdao press. 2003.
7. 石泰. 修眞十書雜著捷經. 서울. 法仁文化社. 1987.
   T Shi. Xiuzhenshishu zazhujiejing. Seoul. Beob-inmunhwasa. 1987.
8. 高文鑄.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WZ Gao. Huatuoyishu. Beijing. Huxia publishing house. 1995.
9. 야마다 게이지 저, 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2002.
   KG Yamada original work. SW Jeon, SG Lee trans.. How did the Chinese medicine start. Seoul. Science Books. 2002.
10. 中國醫籍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Chinese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Chinese Medicine Dictionary. Shanghai. Shanghan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2002.
11. 한봉재. 華佗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BJ Han.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Hwata-hyunmun-naejo-do and The Theory of Internal Organ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7.

12. 斬土英. 五臟圖. 中華醫史雜誌. 1994. 24(2).
TY Zhan. Five visceral Illustration.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4. 24(2).

13. 김학동 外 3人. 煙蘿子의 內境圖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HD Kim et al.. A Study on Yanluozi's visceral figure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3).

14. 한봉재 외 7인. 華佗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 편제.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4).
BJ Han et al.. The Formation and Text Compilation of HuataHyunMunNeJoDo.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2006.

15. 심현아 外 2人. 華佗玄門內照圖의 藥物炮製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2).
HA Shim et al.. A Study on HuatuoXuanmenNeizhaotu in Processing of Medicinal.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 25(2).